

[TV]

히틀러를 향한 칼날, 자유를 향한 용기

명화극장 '소피 숲의...'(KBS1·29일 새벽 0시50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무렵 독일에서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 모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뮌헨에서 결성된 백장미단 역시 히틀러 정권을 비판하면서 독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저항하는 학생 단체, 사랑과 시와 재즈를 읊조리는 여느 순수한 여대생과 다름 없었던 스무 한 살의 여대생 소피 숲. 그녀는 오빠 한스가 가입되어 있는 백장미단에 가담하게 되고,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행동을 결심한다.



마크 로드몬트 감독은 나치 점령 하의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소피 숲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초상을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줄리아 엔체는 휴머니티의 승리를 쟁취하는 소피 숲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TV 하이리이트

무죄 입증할 염색체의 정체는?

신비한TV 서프라이즈(MBC·오전 10시50분) = 1968년 미국,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한 살인마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변호사. 그가 일반사람들과 달리 특수한 염색체구조를 가지고 있어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과연 살인을 무죄로 주장하게 한 그 염색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들만의 대화법, 그들만의 개그

웃음을 찾는 사람들(SBS·오후 6시35분) = 포장마차 자릿세를 뜯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우리의 강력 3반. 하지만 오늘도 쉽지가

않다. 이형사, 이동엽이 범인을 쫓아가지 못한 이유는? 한편, 화제의 인물, 권민장의 위치 바꾸기가 작업한다. 그들만의 대화법과 그들만의 개그, 서울나들이를 넘어 서울 코너, 사생활단으로 꾸러진다.

벌의 실종, 침묵의 몸이 오는가



KBS1 스페셜 '꿀벌 실종 사건'(KBS1·오후 8시) = 꿀벌이 사라진 벌통에는 여왕벌과 유충은 남아 있었지만 일벌만 사라졌다. 그러

나 사체는 보이지 않았다. 꿀벌의 실종, 일시적 현상인가, 생태계에 울리는 경고인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꿀벌 실종 사건의 현장을 3개월여 기간 동안 끈질기게 취재, 사건의 진모를 과학적으로 추적했다.

최고의 무술 고수를 꿈꾼다



무림의 전설, 무당파(내셔널지오그래픽·오전11시) = 소림사와 더불어 중국 양대파를 이루며 무술의 성지라 불리는 무당산에서 최고의 무술 고수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있는 훈련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무당산은 수백년 동안 중국 최고의 무술 고수들을 배출해 온 곳으로, 해마다 중국 각지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훈련을 한다.

TV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Includes program titles, times, and channel number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woman on a horse and promotional text for a 30% discount on hearing aids.

케이블·위성TV 28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every1, OCN, Super Actio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October 28th.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